

11.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 ②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 ③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믿는 자에게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은 유익을 인쳐 증거하는 표이다.
- ④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이로 인하여 나오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이다.
- ⑤ 성례의 유익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으며, 또한 성례 자체와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는 은혜도 있다.

12. 모든 신자의 본분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 ②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례를 지켜야 한다.
- ③ 주의 법을 복종해야 한다.
- ④ 항상 기도해야 한다.
- 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 ⑥ 주를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어야 한다.
- ⑦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헌금해야 한다.
- ⑧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야 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 ⑨ 섬기는 지교회의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 ⑩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13. 다음의 서술 중 빈칸을 채우시오.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 간에 행한 바를 따라 □□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을 얻고 영광 중에 □□을 받을 것이다.

요리문답(31문항) ※ 장로, 전도사

14.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술하시오.

15.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신·구약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 ②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 ③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 ④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 계신 참하나님이십니다.
- ⑤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지만, 능력과 영광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6.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가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 ②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 ③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 ④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7.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옛세 동안에 세상의 물질을 토대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 ②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 ③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 ④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8.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들의 처음 시조는 자기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 ② 죄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거역하여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 ③ 우리의 처음 시조가 그들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일입니다.
- ④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로부터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하여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19.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 ②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죄의 허물, 그로 말미암은 의의 결핍, 그의 본 성품 전체의 부패, 곧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것과 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 범죄 등입니다.
- ③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이생을 온갖 비참 속에서 지내며, 죽게 되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④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쩔 이들을 영생으로 택하셔서 은혜의 계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 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들이려는 것입니다.

20.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②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었습니다.
- ③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 ④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지요, 사람이시며, 두 가지의 특유한 성품을 지니신 두 인격이십니다.

21. 다음의 서술 중 빈칸을 채우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을 위한 □□□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있어 □□□와 □□□과 □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22.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실행함으로써 하십니다.
- ②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심으로써 하십니다.
- ③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 주시는 일과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써 하십니다.
- ④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비천한 상태에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있으며,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 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23.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 ②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십니다.
- ③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 ④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걸따르거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립니다.

24. 성령의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의롭다 하심을 받음 ② 양자가 됨
- ③ 늘 강건하게 하심 ④ 거룩하게 하심

25.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②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효 속에 받아 주시며,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 ③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 ④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결따르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온과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또 은혜 안에서 끝까지 굳게 견디는 것입니다.
- ⑤ 신자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고, 그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 ⑥ 부활 때에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에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흠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6.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 ②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 ③ 그 도덕법은 십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 ④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7. 다음의 서술 중 빈칸을 채우시오.

①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②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법령을 □□하게, 그리고 전부 받아들이고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③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을 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④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과 그가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그의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8. 다음의 서술 중 빈칸을 채우시오.

- ① 셋째 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 ②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을 □□□□, 그리고 □□□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 ③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 데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모독하거나 □□하는 일입니다.
- ④ 셋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서 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29.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 ② 넷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지정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일정한 때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특별히 이레 중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 ③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업무와 오락까지도 끊고, 그 날을 종일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안식일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④ 넷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의무들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이행하는 일과 게으름으로써 그 날을 더럽히거나, 또는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하거나 우리의 세상 업무나 오락에 관하여 필요치 않은 생각이나 말이나 일을 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⑤ 넷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한 주간 중 엿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 그가 일곱째 날에 대한 특별한 소유권을 요구하시는 일과 자기 자신이 보이신 본보기와 그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일입니다.

30.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섯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입니다.

②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윗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을 드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③ 다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것에 배치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④ 다섯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長壽)와 번영이 있으리라는(이 약속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는 선이 되는 한에서) 약속입니다.

31.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② 여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는 모든 일입니다.

③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정절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④ 일곱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모든 정숙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32. 다음의 서술 중 그 뜻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① 여덟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남들의 재산과 신분을 정당하게 얻는 일입니다.

② 여덟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재산이나, 신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일들입니다.

③ 아홉째 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 간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특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④ 아홉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진실에 어긋나는 일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해치는 모든 일입니다.

⑤ 열째 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는 불만을 갖지 않는 일입니다.

⑥ 열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이웃의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면서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는 일과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탐욕을 가지는 모든 것입니다.

33.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선한 삶을 사는 것
- ②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일
- ③ 늘 불쌍한 자를 돌아보는 것
- ④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

34. 다음의 서술 중 빈칸을 채우시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종의 구원의 □□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하며 그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35. 다음의 서술 중 빈칸을 채우시오.

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쓰시는 외형적인 통상적 방편은 그의 법령들, 특히 □□과 □□와 □□이며, 이것들은 모두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효력이 있습니다.

②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의 낭독, 특히 말씀의 □□를 하나의 효과적 방편으로 삼으셔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또 거룩함과 위안으로써 그들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③ 이것은 □□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마침내 구원에 이

르게 하는 것입니다.

④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써 거기에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하며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36.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되는 것은 부분적이나 마 성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과 그것들을 집례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덕에서 오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 ②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 방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축복과 또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의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입니다.
- ③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 ④ 이 예식에 있어서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표적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또 새 언약의 혜택들이 신자들에게 표시되고 보증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37.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약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 ② 세례는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접붙임을 받음과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 ③ 세례를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서는 안 되며, 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이후이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의 회원과 같은 사람들의 아기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한 상황에서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능합니다.
- ④ 성찬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식입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이고 육욕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8. 다음의 서술 중 빈칸을 채우시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들의 □□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와 □□과 새 □□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찬 때 합당치 않게 참여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39. 다음은 기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 ②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 ③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 ④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 ⑥ 금식기도는 다른 기도보다 더 효과적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40.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 곧 보통으로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형식은 기도의 특수한 지침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머리말,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가까이 나아갈 것
- ②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언제나 도울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존경심과 확신을 가질 것
- ③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이 이 땅에 임하시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
- ④ 우리가 남들과 함께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41.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첫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 데 방편으로 쓰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기도
- ②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 데 방편으로 쓰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남들에게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기도
- ③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이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 ④ 모든 일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하시라는 기도

42.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둘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는 것
- ② 은혜의 왕국이 발전되는 것

- ③ 오직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은혜의 왕국으로 인도되어 그 안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 ④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왕국이 하루속히 임하는 것

43. 다음의 서술 중 빈칸을 채우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셋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써 우리에게 □□과 □□ 마음을 주셔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 그것에 □□하도록 하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44. “주님의 기도”에 관한 다음의 서술 중 그 뜻이 바르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넷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충분히 받고 그것들과 아울러 하나님의 복을 즐기는 것입니다.
- ②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다섯째 간구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 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도 거저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 ③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여섯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거나, 우리가 이미 유혹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들어 구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 ④ 주님의 기도의 맺는 말, 곧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왕국과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리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32문항) ※ 장로, 전도사

4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 원리 여섯 가지를 쓰시오.《제1장 원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46.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 중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모두 고르시오.《제1조 양심의 자유》

- 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 ② 하나님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명령이나 교훈을 받지 않게 하였다.
- ③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다.
- ④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47.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2조~제6조》

- 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 ②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 ③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 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 ④ 치리권은 공동의회의 결의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 ⑤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48. 다음 중 교회의 정의에 대한 진술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제7조 교회의 정의》

- ①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무리이다.
- ② 하나님이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 ③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후3: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1:23)이며, 성령의 전(고전3:16)이다.

④ 이 무리는 현재에 살아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49. 지교회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 든 고르시오.《제9조~제12조》

- ①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교회라 한다.
- ②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 ③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 ④ 지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교회의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노회가 허락하면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 재산 및 행정 처리를 확고히 한다.
- ⑤ 지교회의 폐지는 당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⑥ 지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3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50. 교인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모 든 고르시오.《제13조~제16조》

- ①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 ②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 ③ 원입교인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이다.
- ④ 유아세례교인은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6세 이하)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이다.
- ⑤ 아동세례교인은 7-12세 이하로서 세례를 받은 자이다.
- ⑥ 세례교인(입교인)은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3세 이상)자 또는 원입교인(13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이다.
- ⑦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 ⑧ 세례교인(입교인) 된 교인만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51. 교인의 이명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제17조》

- ①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 ②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책벌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④ 본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라도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52. 교인의 출타신고와 자격정지 및 복권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18조~제20조》

- 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 ③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자동으로 복권된다.
- ④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53. 교회의 직원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제21조~제23조》

- ① 교회의 직원은 향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 ②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사역자, 해외선교사, 집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향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 ④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향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 ⑤ 임시직은 전도사, 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54. 목사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24조~제23조》

- ①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다.

- ②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 ③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후3:1-7)로서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라야 하고,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 ④ 이 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수찬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성범죄 포함)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단, 양심범은 제외)

55. 목사의 칭호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제27조》

- ①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으면 폐당회가 되더라도 2년간은 위임목사가 유지된다.
- ②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 ③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 교회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 ④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산업기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
- ⑤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 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
- ⑥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 ⑦ 교육목사는 위임(담임)목사를 교육분야에서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청빙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정치 제28조 4항을 준용하고 연임청원은 헌법 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를 준용한다.
- ⑧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

- ⑨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 ⑩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할 수 있다.
- ⑪ 유학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유학하는 목사다. 허락 받은 유학기간이 종료되면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아야 하며 노회의 연장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무임목사가 된다.

56.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제28조》

- ①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 ②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2 이상이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매 3년마다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한다.
- ④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하여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⑤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청빙할 수 없다. 이는 자립대상교회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57. 장로의 자격과 선택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40조~제42조》

- ①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된 자라야 한다.
- ②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③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 ④ 장로로 피택 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지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58. 장로의 사임과 사직 및 복직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제43조~제47조》

- ①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으며,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 ②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처리한다. 권고사임이 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 ③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자의사직을 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 ④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며,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추대한다.
- ⑤ 은퇴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 ⑥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59. 전도사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48조~제49조》

- ①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 ②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 ③ 전도사의 자격은 25세 이상 된 자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노회 전도사고시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 ④ 시무장로도 상황에 따라 전도사직을 겸할 수 있다.

60.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무와 자격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50조~제53조》

- ①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 ② 안수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후전3:8-10)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그리고 35세 이상 된 남자라야 한다.

- ③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 ④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후전3:1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40세 이상 된 여자라야 한다.

61. 안수집사와 권사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제55조~제58조》

- ① 안수집사 및 권사로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양을 받아야 하며, 당회의 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 ② 안수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 ③ 안수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사직케 할 수 있다.
- ④ 은퇴안수집사, 권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퇴임한 집사, 권사이다.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 ⑤ 자의사임을 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 ⑥ 자의사직을 한 안수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62. 치리회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60조~제62조》

- ①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 ②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 ③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부흥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 ④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 ⑤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 ⑥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

63. 치리회의 권한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제63조》

- ①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오직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 ②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 ③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⑤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속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인사 및 직원임명도 할 수 있다.
- ⑥ 고소(고발)장, 소장이 아닌 접수서류(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에 대하여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 ⑦ 치리회 간의 행정적인 결의 등이 상충될 때는 상급 치리회의 결의(지시)에 따른다.

64. 당회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64조~제66조》

- ①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이상이 있어야 한다.
- ② 최초의 세례교인(입교인) 30인에 한하여는 장로 2인을 동시에 혹은 1인을 선택 후 추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 ③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2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 ④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65. 당회장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제67조》

- ①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 ②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 ③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당회장도 결의권이 있다.
- ④ 미조직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 ⑤ 은퇴목사에게는 대리당회장을 맡길 수 없다.

66. 당회의 직무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68조》 모두 고르시오.

- ①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 ②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3개월 이내에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 ③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도덕적 유익을 도모한다.
- ④ 당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 ⑤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 ⑥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 ⑦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 ⑧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 ⑨ 기타(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67. 당회의 회집 및 당회록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69조~제70조》

- ①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 ② 또한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 ③ 또한 당회원 과반수가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 ④ 또한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 ⑤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68. 당회가 비치할 아홉 가지 명부는 무엇입니까?《제71조》

- 1) □□교인(입교인) 명부,
- 2) □□세례교인 명부,
- 3) □□ 및 □□ 교인 명부,
- 4) □□교인 명부, 5) □□교인 명부,
- 6) □□ 명부, 7) □□ 명부,
- 8) □□ 대장, 9) 교회의 □□□ 대장

69. 노회의 의의 및 조직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72조~제73조》

- 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 ②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 ③ 노회는 교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 ④ 당회에서 총대장로 파송 수는 세례교인(입교인)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 ⑤ 선교목사가 해외에서 시무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선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조직과 기능 등은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목사고시의 시행 및 목사안수와 총회 총대 파송은 할 수 없고 위원장(대리로 서기)은 총회 연권회원이 된다.

70. 노회의 개회성수 및 직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제76조~제77조》 모두 고르시오.

- ①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전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를 총괄한다.
- ③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 ④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 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6:1-8, 딤편5:19).
- ⑤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 ⑥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⑦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 ⑧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 ⑨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 ⑩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한다.

71. 노회의 회집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78조》 모두 고르시오.

- ① 정기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임시노회는 시무처에 관계없이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 ③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 및 기타 중요한 사안을 처리한다.
- ④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72. 시찰회와 시찰위원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제81조》

- ① 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일정 규모로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할 수 있다.
- ② 또한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회원 중에서 선임된 자들로 구성되는 시찰위원회를 둔다.
- ③ 시찰회원에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를 노회의 결의로 포함할 수 있다.
- ④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는 선교부의 관리 대상이므로 시찰회원에 포함될 수 없다.

73. 총회의 의의, 조직, 개회성수 및 직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제83조~제87조》

-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 ②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목사와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 ③ 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④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괄한다.
- ⑤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 ⑥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 ⑦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 ⑧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 ⑨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교류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부흥의 방책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 ⑩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 ⑪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 ⑫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 ⑬ 총회는 임원을 선출한다.
- ⑭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74. 공동의회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 든 고르시오.《제90조》

- ①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과 아동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 ②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두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 ③ 공동의회는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그리고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 ④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 ⑤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당회가 제시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직원 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이다.
- ⑥ 공동의회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⑦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75. 제직회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 든 고르시오.《제91조》

- ①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한다.
- ② 제직회 소집은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 ③ 제직회 소집과 안건은 일주일 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 ④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 ⑤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일반재정의 수입·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당회가 요청한 사항, 부동산 매매 등이다.

76. 교회의 재산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96조~제97조》

- ①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
- ②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
- ③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소유로써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④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다.

⑤ 이미 개인 명의로 등기된 지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반드시 교회 명의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

권징(12문항) ※ 장로고시자만 해당

77. 권징의 뜻에 대한 설명을 완성하시오.《제1조》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하고 □□하는 것이다.

78. 권징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완성하시오.《제2조》

권징은 하나님의 □□과 □□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과 □□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79.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할 수 있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의 내용에 대한 서술 중 바르지 않은 것은?《제3조》 모 든 고르시오.

- ①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 ②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 ③ 예배를 방해한 행위
- ④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 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 ⑥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 ⑦ 파렴치한 행위(성범죄 포함)로 국가 재판에 의해 징역(성범죄의 경우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 ⑧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⑨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 ⑩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 ⑪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 ⑫ 교회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업무 방해와 치리회 재판국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
- ⑬ 교회, 노회, 총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개인정보와 문서의 불법 획득 및 유출하는 행위와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 ⑭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행위
- ⑮ 노회, 총회의 감사 위원과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직원 및 이사, 감사가 고의적 행위로 노회, 총회 각 상임 부서, 산하기관 및 단체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

80.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4조》

- ①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 ③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 ④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끝나야 한다.

81. 다음의 보기 내용 중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제5조 1항》

〈보기〉

시무해임, 수찬정지, 상회총대파송, 견책,
시무정지, 면직, 근신, 출교, 정직

- ①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 ()
- ②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 ()
- ③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 ()
- ④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 ()
- ⑤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 ()
- ⑥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 ()
- ⑦ 교회 직원과 치리회는 1~3년 이내, 노회와 총회 직원은 2~3년 이내, 총회 산하 단체·기관 이사는 3~5년 이내의 기간 상회총대파송을 정지한다. - ()
- ⑧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 ()
- ⑨ 교인명부에서 제명,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 ()

82. 다음은 재판에서 범죄가 확인된 자에게 판결로서 정해지는 벌과 그 대상자를 연결한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제5조 2-4항》

- 견책, 근신, 수찬정지, 출교 - ()
-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상회총대파송 정지 - ()
- 상회 총대파송 정지 - ()

가. 교인 나. 직원 다. 치리회

- ① 나 - 다 - 가 ② 가 - 나 - 다
- ③ 다 - 가 - 나 ④ 가 - 다 - 나

83. 책벌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제6조》

- ①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단, 은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 ③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석상에서의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다.
- ④ 제3조 제10항의 범죄를 행한 자가 피고인일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다.

84. 당회 재판국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23조~제26조》

- ①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 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 ②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③ 재판국장은 재판국의 일반 업무와 재판사무를 총괄 지휘·감독하고, 재판국 서기는 재판국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재판국의 일반 업무와 재판 진행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고,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 ④ 당회 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안수집사·권사·집사·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 ⑤ 당회원을 제외한 일반교인 및 직원에 대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시무정지 6개월 이하의 책벌을 과하거나 혹은 책벌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당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당회원 과반수 결의로 기소 및 재판절차를 대신할 수 있으며 효력은 당회 기소위원회의 결정, 당회 재판국의 판결과 동일하다.

85. 고소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48조~제50조》

- ① 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

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 ③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 그러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에 대한 재정 비리 및 부정행위와 상당한 죄과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고발이나 기소의뢰 기간은 원인 행위 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는 고발의 경우에도 같다.
- 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86. 고발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51조~제52조》

- ①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고발할 수 있다.
- ② 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 ③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 ④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할 수 있다.
- ⑤ 고발을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발하지 못한다. 하지만 고발과 동일한 내용인 후고발자의 고발은 받아들인다.

87. 고소와 고발 및 기소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고르시오.《제54조, 55조, 58조, 60~61조》

- ① 치리회장이 고소장(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 ② 접수한 고소장(고발장)을 치리회장이 전항의 기간 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지 않거나 반려할 경우에는 고소(고발) 당사자가 부전지를 첨부하여 기소위원회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 ③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치리회장의 기소의뢰는 고발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⑤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⑥ 당회 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 ⑦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⑧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⑨ 당회, 노회, 총회 및 각 치리회의 산하단체 및 기관에 대한 재정 비리나 공금 횡령 및 유용과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기소제기의 시효는 원인 행위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 ⑩ 기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기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⑪ 기소위원회의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88.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64조》

- ①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 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 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 ②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제64조 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노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 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 ④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예배와 예식(20문항) ※ 목사후보생, 장로, 전도사

89.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1장 1-1》

- 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예배와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그 존재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 ②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경건한 응답으로써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

- ③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례 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④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 받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소명은 교회공동체 구성원에게 각각 다른 분야를 섬기도록 하셨으며, 특히 목사에게는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와 성례전의 집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모든 향존직 직원은 모든 회중들을 대표하여 예배의 준비와 질서를 맡아 수행해야 한다.

90. 예배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1장 1-2》

- ① 기독교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 ② 여기서 예배자들은 최상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마22:37)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권세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 ③ 이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드러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펴신 하나님이 예배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즉,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감격과 은혜와 사랑과 새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 ④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간 중심으로 드러질 수 없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성경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이 예배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91. 예배의 날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1장 1-3-1》

- ① 기독교는 사도시대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이날에 예배를 드린다. 이날에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부활을 송축하며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다.
- ② 또한 이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한 날이며 창조 후에 새로운 출발을 가져온 날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나, 이상과 같은 깊은 의미를 가진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부활의 승리를 송축하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이며 마땅한 의무이다.

- ③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성별하여 이른 아침부터 육신의 생업을 중지하고, 모든 가족이 예배를 드릴 준비에 거리낌이 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인도할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
- ④ 주님의 날에 드리는 예배는 정한 시간에 한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하며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질서를 지켜야 한다.
- ⑤ 공중예배를 마친 후에는 그 남은 시간을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도, 찬송, 성경공부를 비롯하여 신앙의 대화나 경건한 서적을 읽도록 할 것이지만 병자 위문, 가난한 자 구제, 불신자를 위한 전도 등에 대해서는 크게 영적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92. 다음은 교회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절기명을 적으시오.《제1장 1-3-2》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배가 형식이나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성한 의미가 주어지는 예배의 계획과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세계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에 맞춘 교회력과 성구집을 사용함이 합당하다. 교회력은 매 주일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고취시키는 절기 - ()
- ②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절기 - ()
- ③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보여 주신 은총을 인식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절기 - ()
- ④ 그리스도인들이 참회와 절제와 깊은 명상으로 수난의 길을 택하신 주님을 새롭게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 - ()
- 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 모진 고초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의 훈련을 쌓고, 그리고 주님의 수난을 명상하는 주간 - ()
- ⑥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권능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함께 있게 됨을 감사하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다짐하는 절기 - ()
- ⑦ 성령강림절은 초대교회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동력 있는 삶을 강조하는 절기 - ()

93. 예배와 관련하여 명절과 국경일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1장 1-3-3》

- ① 우리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② 또한 민족의 심성이 담긴 내용과 음률이 표현된 찬송의 개발도 필요하다.
- ③ 오직 복음에 손상을 끼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교회가 복음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활용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 ④ 우리 민족의 명절과 국경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심성과 문화적 요소가 전통적인 예배의 문화에 스며들면 자칫 복음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94. 예배의 장소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1장 1-4》

- ① 하나님은 일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예배를 받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지 아니한다.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또한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의 전통이 되었다.
- ② 예수께서도 성전이나 회당을 정기적으로 출입하면서 예배하였으며 그 제자들도 그러하였다. 초기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의 절박한 환경에서는 가정집이나 동굴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나, 그들은 변함없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 ③ 오늘도 교회가 자신들의 정성을 다하여 성전과 같은 예배의 장소를 봉헌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림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예배당을 갖지 못한 교회가 적절한 처소를 정하여 예배를 드려도 좋다.
- ④ 다만 어떤 형태의 예배 장소가 되었던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공간의 기본 구조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에 따른 성구(聖具)를 갖추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95. 예배의 교육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1장 1-5》

- 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할 타당성을 비롯하여 예배하는 개인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 ②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행한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서 섬겨야 하는지를 깨달도록 교육해야 한다.
- ③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적인 것임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목적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한다.

- ④ 예배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예배의 의미와 역사와 드리는 각 순서의 뜻을 알고 능동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배는 삶 속에 깊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96. 말씀의 예전에서 기도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2장 2-1-1》

- ① 예배준비를 위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첫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모인 예배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이 기도와 함께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이때의 기도는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죄인 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와 성령님의 은혜의 도우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실 것을 기도함이 마땅하다.
- ② 목회기도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와 있는 회중들의 죄 용서와 소원을 구하는 중보적 의미를 가진 기도로서 목사에 의하여 드려진다. 목회기도에는 경배, 감사, 자복, 간구, 중보와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 ③ 설교 전 기도는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의 경청을 위하여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에는 설교자가 말씀의 선포를 위한 순수한 도구가 되어 성령님에 의하여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해 달라는 간구와 의탁이 있어야 한다.
- ④ 설교 후 기도는 설교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내적 역사에 의하여 말씀을 경청한 회중들에게서 귀한 결실을 맺도록 간구하는 기도이다.
- ⑤ 공중예배 순서에 평신도가 드리는 기도는 목회기도가 아니므로 그 내용은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자복과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이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목회기도와 중복되어도 무방하다.
- ⑥ 공중예배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나 평신도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적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언제나 공중예배의 기도를 위하여 자기 마음을 안정하고 기도의 내용을 준비하여 마음과 몸의 자세를 경건하게 가져야 한다.

- ⑦ 공중예배의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자세는 기도 인도자와 더불어 경건한 태도이어야 하며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아멘으로 응답한다.
- ⑧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요15:1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97. 말씀의 예전에서 말씀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2장 2-1-2》 모두 고르시오.

- 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계신다.
- ②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과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삶의 원천적인 근원을 제공해 준다.
- ③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봉독되어야 한다. 성경봉독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 선포되게 하기 위하여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가 가급적 봉독되도록 한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의 말씀 중에 어느 한 곳의 말씀만을 봉독해도 무방하다.
- ④ 봉독할 성경의 내용은 목사가 정하되 그 봉독은 목사나 목사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그리고 봉독자는 미리 준비하여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로 말씀을 정확하게 봉독해야 한다.
- ⑤ 설교는 말씀 선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 훈련 받은 종을 통하여 오늘의 회중들에게 바르게 선포되고 정확하게 해석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하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확신과 구원의 은총을 계속 받아야 한다.
- ⑥ 말씀의 사역을 맡은 설교자는 부름 받은 말씀의 종으로서 소명감과 함께 영적인 생활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생활을 계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될 회중의 삶의 장에 대하여 깊은 관찰을 계속하여 말씀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⑦ 예배 중의 설교는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한 시간 내에 설교하되 하나님과 그 말씀이 주종이 되어 회중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회중의 형편에 따라 설교자의 지식과 경험과 예화가 주종을 이루어도 무방하다.
- ⑧ 교회는 담임목사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경건회나 기도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탁의 예식에서는 성경봉독으로 설교를 대신할 수 있다.

- ⑨ 성례전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글로 기록되어진 말씀과 선포되어진 말씀과 같이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의 연속이다.

98. 말씀의 예전에서 시와 찬미와 찬양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2장 2-1-3》 모두 고르시오.

- ① 시와 찬미와 찬양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드려야 할 마땅한 본분이다.
- ② 경배와 감사를 포함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만 회중의 감정이나 경험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
- ③ 시편과 찬송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찬송을 부를 때 깊은 이해를 가지고 경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며 모든 음악 순서는 그 예배의 목적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 ④ 당회는 시와 찬미와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예배의 참여자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은혜가 되기 위하여 예배 순서에 찬양과 연주를 맡을 찬양대원을 가급적 많이 세워야 한다.
- ⑤ 주일예배에서의 찬송만큼은 교회 전통에서 공인된 것을 부르는 것이 좋지만 회중이 은혜를 받아야 하므로 공인되지 않은 노래들도 얼마든지 불리어지고 활용될 수 있다.
- ⑥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미와 찬양은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계속하여 생활화되도록 해야 한다.

99. 성례전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2장 2-2-1》

- ① 성례전은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전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의 보이는 형태인데,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
- ② 성례전에 사용되는 물과 떡과 포도즙은 비록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가지고 그와 성도들과의 구속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 ③ 성례전은 예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위하여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서나 이 예전을 자주 또 정당하게 거행하여 신령한 유익을 얻도록 한다.
- ④ 성례전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해서 집례 되어져야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형편에 따라서는 장로가 집례 할 수도 있다.
- ⑤ 성례전 집례의 장소는 교회가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도 당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들의 참석하에 집례할 수 있다.

100. 세례 성례전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제2장 2-2-2》

- ① 세례는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의 참여와 중생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때부터 교회의 책임적인 구성원이 되어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 ② 세례는 전체 교회의 행위이므로, 공중예배에서 회중의 참여 가운데 베풀어져야 하며, 이때 세례의 의미와 함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임종을 맞는 이의 경우, 목사의 인도로 신앙고백 후에 먼저 세례를 베풀고 후에 당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때 세례자의 명단은 당회록이나 세례교인 명부 중 어느 한 곳 이상에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한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단이 인정하는 타 교단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다시 베풀지 아니한다.
- ③ 세례의 물은 십자가의 보혈과 천지창조, 노아 홍수, 출애굽 때의 물을 상징함으로써 죄 씻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을 나타낸다. 세례의식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반의 물을 한 번 또는 세 번 뿌리거나, 또는 흐르는 물에 잠글 수도 있다.
- ④ 구약시대에 할례를 베풀어 유아도 은총의 언약 아래 있게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들어가는 표인 세례를 유아에게 주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유아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이다. 이 세례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원입교인일 때 베풀 수 있다.
- ⑤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장성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하도록 하는 예식이다. 이 입교 예식을 통하여 교회는 그에게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목사는 세례의 문답을 통하여 당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해야 하며 회중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세례교인 됨을 공포해야 한다.
- ⑥ 성인세례는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여 교인이 되고자 할 때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례를 받기 전에 당회는 그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거기에 수반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앙고백을 포함한 적절한 문답을 한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공중예배에서 세례를 받도록 하고, 교인 명부에 기록한다.

⑦ 회중들은 한국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유아세례의 경우도 부모는 수세자가 성장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신앙공동체 안에서 양육과 지도의 책임을 진다.

101. 성찬 성례전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제2장 2-2-3》

- ① 세례 성례전을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은 성찬 성례전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이 예전의 주인은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의 표로서 떡과 잔을 나누셨다.
- ② 성찬 성례전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그가 십자가의 수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은 자신의 몸이요, 잔은 그의 피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상처를 입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는 약속의 표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찬 성례전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기념(회상, 재현)하라고 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전을 행하라고 하셨다.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초대교회 때부터 현재까지 성찬을 신령한 예전으로 지켜 오고 있다.
- ③ 성찬 성례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증표이다. 성찬 성례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믿음과 성화시키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한다. 또한 이 예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즐거운 잔치와 어린양의 혼인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예전이다.
- ④ 성찬 성례전의 집례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마 26:26-29, 막 14:12-26, 눅 22:15-20)과 바울이 기록한 만찬(고전 11:23-29)의 유형을 따라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은 절대적 관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성찬 성례전이 집례될 때에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일을 생략할 수도 있다.
- ⑤ 이 유형에 따라 먼저 성찬의 성물은 떡과 포도즙으로 해야 한다. 준비된 성찬상 앞에서 성령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린 후 집례자는 떡을 손에 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한다. 떡의 분배는 정해진 순서 없이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나와서 받는다. 이어서 집례자는 잔을 손에 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 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전한다. 잔의 분배 역시 정해진 순서 없이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자유로이 나와서 받는다.

⑥ 성찬 성례전의 참여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예전을 집례하는 목사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집례하게 된 자신의 막중한 사명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참여자들은 준비된 성물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성별의 기도 속에 영적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뵈는 경험을 갖도록 하며 그의 새 언약에 참여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⑦ 이 성찬 성례전은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역사가 이룩되는 순간이므로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준비한다.

102. 봉헌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제2장 2-2-4》

① 봉헌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으나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② 성도들의 정성어린 예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기쁨과 감사의 응답으로 드려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간구와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예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③ 예물의 봉헌은 예배 중의 순서로 정중히 행해져야 하며 목사는 이 순서 전이나 후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④ 봉헌된 예물은 당회의 감독 하에 주님의 복음 사업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지만,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그 과정과 결과를 알게 할 필요는 없다.

103. 예배의 배열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3장》

① 공중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표현되는 질서의식이 내포되어야 한다. 목사는 예배가 성경적이 되도록 신약시대 교회의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예배는 교회 전통과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공동예배의 성격에 집착하기보다는 회중의 다양성과 문화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공중예배의 기본 배열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서로 예배가 시작된다.

③ 기본 배열 둘째는 찬송과 고백과 기도이다.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시와 찬미로 화답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와 율법서나 복음서의 성구로 용서 받은 것을 깨닫게 하는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④ 기본 배열 셋째는 말씀의 순서이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부분이다. 이 순서는 성경봉독, 설교, 성례전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영혼에 새로운 영양소를 공급하는 소중한 부분이다.

⑤ 기본 배열 넷째는 감사와 응답의 순서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으로써 찬송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보이는 부분이다.

⑥ 기본 배열 다섯째는 찬송과 위탁의 말씀과 축도이다. 여기서는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찬송을 부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 후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목사가 선언한다. 이때의 축도는 성경대로 한다(민6:24-26, 고후 13:13, 히13:20-21, 살후2:16-17).

104. 예배의 분류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4장》

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그 일차적인 존재 의의가 있으며, 어떤 예배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 삶을 결단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주일예배는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배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예배는 기독교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형성하고 지탱해 왔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생애를 회상하고 부활의 주님 안에 계시된 약속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일예배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의식에서 질서가 있어야 한다.

③ 주일 오후나 저녁에 모이는 찬양예배는 성도의 교제와 교회공동체의 역동성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 예배에서는 교인들의 신앙체험을 간증하고 고백하며, 서로 격려하여 신앙성장으로 이끌며,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은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

- ④ 수요기도회에 교회의 회중들은 주일예배에서 가졌던 결단을 새롭게 다진다. 이 집회에는 회중들이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다가오는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경의 연구와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 ⑤ 새벽에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더 성장케 하고 풍요롭게 한다.
- ⑥ 교회학교 예배는 교회학교 학생의 연령과 이해력에 맞춰 예배의 형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기도와 찬송과 말씀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유아세례에서 행한 서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또는 세례 받을 준비도 하게 하고, 장차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게 한다. 교회학교 예배는 주일예배와 분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주일예배에 자주 참여하도록 한다.
- ⑦ 주중의 한 날을 정하여 한 장소에 모여 구역 안에 있는 교인들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을 교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로써 신앙생활의 강화를 도모함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특히 구역기도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를 두텁게 하는 동시에 교회의 일에도 힘을 합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개인의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심화시킨다.
- ⑧ 성도들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또한 개인과 가정의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한 일이다.
- ⑨ 정기집회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교회는 특별집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집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장려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특별집회로서 부흥회를 비롯하여 철야기도회, 금식기도회, 또는 교회봉사를 위한 기타 집회를 가짐이 유익하다.

105. 결혼예식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제5장 5-3》

- 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창1:24-27),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이다.
- ②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한 결혼예식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창2:18)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 ③ 결혼은 순결과 정조와 관계되는 일이므로 이 일에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생활해야 하며, 결혼예식을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는 것이 좋지만 요즘 추세에 따라 기독교 정신으로 한다면 무(無)주례 결혼예식도 무방하다.
- ④ 주례자는 남자가 각각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부모나 그 후견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집례해야 한다.
- ⑤ 교회의 모든 예식이 그러하듯이 결혼예식도 예배드리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신부와 신랑은 상호 간에 평생을 같이 살기로 결심하고, 신앙공동체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106. 장례예식에 대한 서술 중 옳은 것은?《제5장 5-4》 모두 고르시오.

- ①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반응을 결정해야 한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실감, 슬픔과 비애를 가져오나, 죽음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확인한다.
- ②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소망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이요, 그 보증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 ③ 장례예식은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며 증거하는 예식이다. 그러므로 장례예식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식을 갖는 장소에서 목회자의 집례 아래 거행되어야 하지만 유족들의 상황에 따라서 평화를 위해 접점을 찾는 것도 괜찮다.
- ④ 장례예식은 성경말씀을 봉독하고, 죽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의 선포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확신케 하는 찬송 등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107. 예배와 선교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제6장 6-1》

- 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선교에 참여하게 하신다.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는 행위이다.
- ② 그리스도인은 예배에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한다.
- ③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선포, 화해의 사역, 봉사의 삶, 그리고 청지기 직책을 널리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한다.

④ 예배에 참여한 회중은 날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나누도록 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신앙공동체로 인도하신다.

108. 예배와 화해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제6장 6-2》

- ① 교회는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룬다.
- ② 그리고 교회는 예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를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실천하며, 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결단을 한다.
- ③ 하나님 말씀의 증거에서 회중들은 화해를 방해하는 모든 죄악의 공포로부터 해방과 자유의 확신을 얻는다.
- ④ 세례와 성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
- ⑤ 기도에서 회중들은 파괴와 폭력과 불의에 빠진 자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
- ⑥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된 정의와 평화를 감사한다.
- ⑦ 예배 전체를 통하여 성화된 몸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한다.

예상문제 출제는

헌법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음을 밝힙니다.

※ 예상문제 모범답안 ※

신조(13문항)

- 01. 하나님, 신앙, 행위, 무오
- 02. ④ 03. 삼위, 본체, 권능, 영광 04. ②
- 05. 지식, 의, 기록하심, 주관
- 06. 자유, 참여, 고의, 공평
- 07. 그로만(×2), 참사람(×2), 완전히, 온전한, 만족
- 08. ① 09. ⑤ 10. 은혜, 성경, 성례, 기도
- 11. ⑤ 12. ⑨ 13. 부활, 보응, 사함, 영접

요리문답(31문항)

- 14.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 15. ①, ⑤
- 16. ②, ④ 17. ① 18. ② 19. ② 20. ④
- 21. 유일한, 예언자, 제사장, 왕
- 22. ① 23. ③ 24. ③ 25. ③
- 26. ④ 27. 질투, 순수, 우상, 점유권, 열의
- 28. 속성, 기록하게, 존경심, 남용 29. ③ 30. ②
- 31. ② 32. ①, ②, ③, ⑤ 33. ④
- 34. 은총, 의식, 이해, 미워, 복종, 노력
- 35. 말씀, 성례, 기도, 설교, 믿음, 열중, 간직, 실천
- 36. ① 37. ③ 38. 지식, 믿음, 회개, 사랑, 복종
- 39. ③, ⑥ 40. ①, ②, ④ 41. ③ 42. ③
- 43. 능력, 기쁜, 알고, 복종 44. ②, ④

정치(32문항)

- 45.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진리와 행위,
교회의 직원, 치리권, 권징
- 46. ①, ②, ③ 47. ④ 48. ④
- 49. ④, ⑥ 50. ②, ⑧ 51. ④ 52. ③
- 53. ④ 54. ④ 55. ①, ④, ⑧ 56. ②, ⑤

- 57. ③ 58. ②, ④ 59. ④ 60. ④ 61. ⑤ 62. ③
- 63. ①, ⑤ 64. ③ 65. ③, ⑤ 66. ②, ③ 67. ③
- 68. 세례, 유아, 책벌, 해벌, 실종, 이명, 혼인, 별세, 비품, 부동산
- 69. ③ 70. ①, ② 71. ②, ③ 72. ④ 73. ⑨
- 74. ②, ③ 75. ③, ⑤ 76. ⑤

권징(12문항)

- 77. 권한, 시행, 헌법, 위반, 권고, 징계
- 78. 영광, 권위, 신성, 질서, 회개 79. ⑦, ⑮ 80. ④
- 81.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상회총대파송, 면직, 출교
- 82. ② 83. ① 84. ⑤ 85. ③ 86. ⑤ 87. ⑥, ⑧
- 88. ③

예배와 예식(20문항)

- 89. ④ 90. ① 91. ⑤
- 92. ① 대림절, ② 성탄절, ③ 주현절, ④ 사순절,
⑤ 고난주간, ⑥ 부활절, ⑦ 성령강림절
- 93. ④ 94. ④ 95. ② 96. ⑤ 97. ③, ⑦, ⑧
- 98. ②, ④, ⑤ 99. ④ 100. ②, ④, ⑦ 101. ④, ⑤
- 102. ②, ④ 103. ① 104. ⑨ 105. ③
- 106. ①, ②, ④ 107. ③ 108. ③